



보도일시	2022. 2. 14. (월)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	위성락 위원장
담당자	전수미 수석부대변인	연락처	010-9970-7994
사진	0	영상	X ※ 불임자료 : 행사 개요, 이상민 국회의원 축사, 위성락 위원장 기조연설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주최 14일 “신경제·신안보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는 ‘신경제·신안보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를 주제로 14일(월) 코리아나호텔 7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와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본 회의가 진행됐다.

위성락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민생을 지향하는 것이 실용외교의 길이라는 점을 밝힌다. 위성락 위원장은 신경제·신안보 시대의 ‘국민이 행복한 글로벌 모범국가’를 실용외교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익외교, 포괄적 한미동맹의 강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억지와 유연의 균형외교, 포스트 코로나 신외교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경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신안보 위협과 국가 책무성’을 주제로 신안보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신안보 독트린’을 제안하고,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통상정책의 안보화 시대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한동만 전 필리핀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신경제·신안보 시대의 과제와 글로벌 외교와 세계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수훈 전 일본 대사와 임성남 전 아세안 대사가 총평했다. (끝)

※ [붙임1] 행사 개요

---

## 실용외교 세미나 신경제·신안보시대의 대한민국 실용외교

---

- 일 시 : 2022년 2월 14일(월), 14:45-16:30
- 장 소 : 코리아나 호텔 7층 회의실
- 주 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 주 관 :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사회: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 개막식 (14:45-15:00)

개회사: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  
축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조연설: 위성락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  
사진촬영

### 회의 (15:00-16:30)

사회: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  
발표: 조경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한동만 前 필리핀 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재덕 원광대학교 교수,  
황재준 북한대학원대학교 객원연구위원  
총평: 이수훈 前 일본 대사, 임성남 前 아세안 대사

※ [붙임2] 현장사진





※ [붙임3] 위성락 위원장 기조연설

## 신경제·신안보 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 세미나 기조연설

우리 실용외교 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신 이상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하고 토론해 주실 전문가와 대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총평을 해주실 이수훈, 임성남 실용외교위원회 특별고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신경제·신안보 시대 대한민국 실용 외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됩니다. 우리 실용외교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용외교”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가졌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첫 번째 세미나가 개최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므로, 그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모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두 달 동안이지만, 그간에도, 지속되고 강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 심화되는 미중 대립, 긴장국면의 우크라이나 상황 등 외교 안보 환경은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도 공약 발표와 TV토론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을 담은 외교안보 공약과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에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환경 변화와 그와 연관되는 과제, 새로운 외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외교의 외부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질서의 구조와 외교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빈곤 등 범지구적 과제, 미중 경쟁과 대립의 심화, 4차 산업 혁명으로 통칭되는 AI, 바이오, 6G, 빅 데이터 등

신기술, 반도체,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사이버, 우주 등 신경제 신 안보 이슈들의 전면 부상으로 기존 질서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외교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된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역대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을 판단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강력히 요청하는 사안은 미국의 말을 들어주고, 중국이 강력히 요청하는 사안은 중국의 입장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동맹인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기대치를 높이고 성에 차지 않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미중 경쟁과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미중 양측의 對 한국 견인력은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를 고심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재명 후보께서 대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나갈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본 정향을 가지고 대두되는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본 방향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교정책은 일관성과 일체성, 예측 가능성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국제적 입지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G-7의 반열에 있습니다. 경제력에 있어 명실공히 G-10의 국가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자주 언급하시듯이,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모두를 이룩한 세계 유일의 성공 사례입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완성, 시민사회 활성화의 경험을 본받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적 역량이 분출되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늘 언급해왔지만, 우리의 외교력이 아직 그간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력도 선진 대한민국에 적합한 외교를 구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외교선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 정보통신, 각종 현대 미디어 수단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



되었습니다. 대외교류와 접촉의 폭과 수준도 과거 중앙정부 간의 소통을 넘어, 외국의 국민(public)을 대상으로 할 만큼 커졌습니다. 또, 한 국가 내에서도 국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보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교활동도 이제는 일반시민, 지방정부, 기업,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재명 후보께서는 새로운 외교 기조로서 실용외교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념과 정파적 사고를 벗어나,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생활 개선과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능동적인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용외교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용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간 이루어온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문화적 역량이라는 3 기둥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정신적 가치의 추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국익 우선의 실질적 측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 포괄적 한미 동맹 고도화와 한중 전략적 동반자 심화,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유럽·아세안·인도·유라시아·아중동·중남미 등으로의 외교 관계의 다변화,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지원 및 활용 강화 등의 과제를 실용적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외교 추진은 미중경쟁 및 대립 심화 상황 속에서 국익 중심의 주체적 대응, 북핵 문제 해결 노력 과정에서의 우리의 적극적 역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용적 활용 등과 연결될 것입니다.

문화 정신 가치의 발현 측면에서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처, 기후변화, 빈곤 등 범세계적 과제 해결 기여, ODA와 공공외교의 결합한 한국형 국민 참여 확대 공헌 외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활용, K-컬처 등 문화 역량을 활용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용외교는 “주가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 불, 종합국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후보의 차기 정부 외교정책의 기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을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고,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이 세계무대로 나아가, 자신의 기량과 꿈, 전문역량을 맘껏 펼치는 날의 도래에 기여하는 외교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진외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신경제 신안보 이슈는 앞서 말한 여러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우리 사회 내에서의 논의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처 방안 마련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우주, 인간 안보 등 신 안보적 이슈에서의 적극적인 준비와 역할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관련 규범 제정 등을 위한 세계적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의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전략에 대한 좋은 발제와 유용한 토의를 기대합니다.

G-5를 겨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드는 신경제 이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분야는 국내적 요소와 국제적 요소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양 측면에서의 폭넓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실용외교위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즉, 주요 대상국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나가고, 협력 대상국별로, 구체적 분야별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며, 국내 관련 부서들과는 어떤 협력체계를 통해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지 등에 대해, 차기 정부에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신경제 신안보 시대를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해갈 방향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 외교가 국민께 더욱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수렴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준비를 총괄해주신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님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신 여러 학자, 실용외교 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2022.2.14.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 위성락